

학술단신

### 간화선 미래를 논하다

불교학연구회 2월 19~20일 동계 워크숍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는 오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간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에서 동계 워크숍을 개최한다.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겨울 워크숍은 '한국 간화선, 미래는 있는가'를 주제로 토론의 장이 펼쳐

질 예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제10교구본사 은해사 답사도 이뤄진다.

워크숍 참가 자격은 불교학연구회 회원과 불교학자, 스님, 학생 등이면 가능하며 참가 인원은 40명으로 선착순 마감한다. 010-4313-2122

신성민 기자

### 경전 유통이 신생활에 미친 변화는

불교평론, 21일 열린는단... 이미령 칼럼니스트 발제

경전의 번역과 유통이 불자들의 신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조 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계간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 연구소는 1월 21일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경전의 번역과 유통, 그리고 신생활의 변화'를 주제로 올해 첫 열린는단을 개최한다. 발제는 이미령

칼럼니스트가 맡는다. 이날 열린는단에서는 현대 한국 불교에서 어떤 경전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를 조망하고 최근 현상인 <니까야> 등 초기 경전의 번역과 유통이 신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가 논의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 '천대학 연구' 18집 발간

韓中日 천태종 수행종풍 다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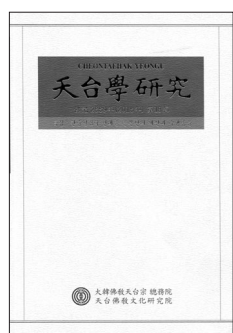
천태종 산하 천태불교문화연구원 이 발간하는 <천대학 연구> 18집이 최근 발간됐다.

이번 <천대학 연구> 18집은 '한중일 3국 천태종 총본산의 개산과 수행종풍'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구인사 개산 7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편집·수록한 것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지자대사와 천태산 국정감사(쉬즈치 천태종불학원 교사) △히예잔 엔라쿠지와 전교대사 사이조(구와타니 유겐 일본 예산학원 학장) △소백산 구인사와 상월

대조사(원기종 동국대 명예교수) △고려 의통과 송나라 초기 천태종의 중흥(장평레이 중국인민대학 교수) △연력사의 수행과 문화(다케가쿠치 일중환 불교우호교류협회 이사장) △구인사의 수행종풍과 문화(천태종 황통사 주지 세운 스님) 등이 수록됐다.

신성민 기자



### 불광연구원 연구인력 채용

오는 28일까지 마감

전법과 교화의 학술적 지평을 열어가는 불광사 산하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이 새로운 연구인력을 채용한다.

지원 자격은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불교관련 전공자는 우대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1월 28일까지며, 지원자는 이력서와 최종학력 증명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된다. (02)941-3537 신성민 기자

# 내포 불교 역사·문화를 '한눈에'

충남도 <내포의 불교 사상과 문화> 발간

충남 내포 지역의 불교사와 문화, 민간풍습들을 총망라한 총서가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충남도(도지사 안희정)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내포 문화 원형 발굴 및 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내포문화총서' 제5권 <내포의 불교사상과 문화>를 최근 발간했다. 제6권으로는 <내포의 천주교와 성지>를 펴냈다.

충남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내포 지역은 옛 충청감영이 있던 공주에서 서북쪽으로 2백 리쯤 가면 가야산과 만나는 곳이다. 현재 예산과 당진, 서산, 홍성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이곳(내포)의 땅은 기름지고 평평하면서 넓다. 또한 소금과 물고기가 많아서 대를 이어서 사는 사대부들이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충남 내륙과는 달리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가 내재된 곳이기도 하다.

총서 <내포의 불교사상과 문화>는 내포 지역 불교를 문화사적으로 주목하며 엮었다. 총서에서는 내포 지역 고대 선진 불교와 독특한 문화유산, 그리고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국민 통합과 호국의 가치를 들었던 내포 불교에 대해 살폈다. 또한 한말 근대화 과정에서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내포 지역 여러 고승(高僧)의 정신도 되새겼다.

총서 <내포의 불교사상과 문화>는 총

론을 비롯해 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총론 '내포지역 불교의 성격과 의미'는 이병희 한국교원대 교수가 썼다.

1장은 내포지역 불교 유입과 마애불을 다루고 있으며, 2장은 선종과 화엄종 사상의 요람으로서의 내포, 3장은 내포지역에서 유행했던 미륵신앙과 매향활동 등을 풀이해 놓았다. 또한 4장에서는 경허, 만공 스님과 만해 한용운 스님의 항일 정신과 선종 진작의 면모, 김일업 스님의 생애에 대해서 조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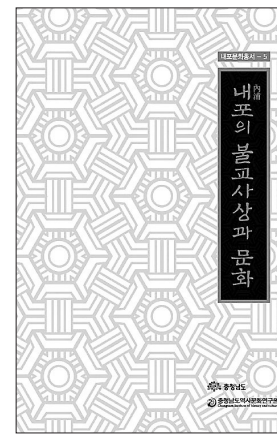
내포 지역 불교 유입부터

사찰·고승·풍습 등 총망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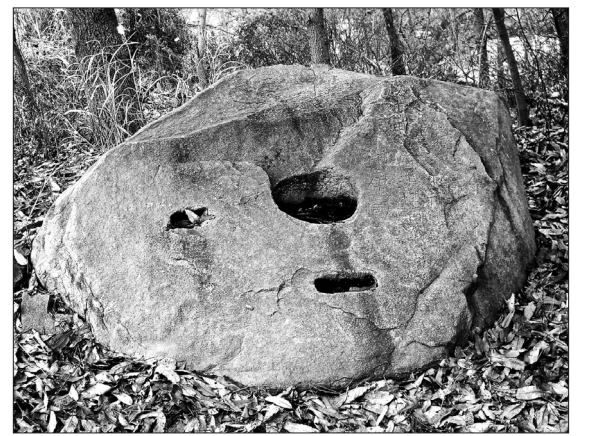
지역 문화 원형발굴 사례

내포 지역의 불교 문화가 발달한 이유에 대해 이병희 교수는 "총론"을 통해 "내포지역의 불교는 백제시기부터 크게 번성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 문화재를 여럿 남기고 있다"면서 "내포 지역에서 불교계가 활기를 띠 수 있었던 것은 1차적으로 지역민의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개경, 한양을 연안 해로 이동이 가능했던 것도 주요하다"고 설명했다.

총서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내포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미륵 신앙과 이에



충남도 발간 내포문화총서 <내포의 불교사상과 문화>



효교리 매향 암각(예산군 봉산면 소재). 매향은 내포 등 연안 지역에 나타난 미륵 하생을 기원하는 불교 민간 신앙이다.

기반한 매향(埋香) 풍습이다. 매향은 미래 하생할 미륵불의 용화회에 공양할 침향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통 향나무, 소나무, 참나무를 깎아서 묻어 침향을 만들며, 여기에 동참하면 내생에 미륵의 용화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봤다.

내포는 바닷물이 육지의 담수와 만나 지점이 많아 매향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에는 덕산 매향비, 홍성 용우리 매향비(해미 매향비), 당진 여미리 배비위 매향비 2종 등 4종의 매향비가 전해지며, 암각 사례도 상당 수가 있다.

총서 중 '내포지역 미륵신앙과 매향'을 저술한 채웅석 카톨릭대 교수는 "지역민들은 마을에 인접한 깎발에서 매향을 하며 종교적으로는 미륵의 구원을 기원하고 현실적으로 향촌공동체 나아가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했다"면서 "이러한 소망을 담아 집단적으로 매향이라는 신앙활동을 하면서 공동운명체로서 결속을 보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의 '내포 문화 총서'는 지역 문화 원형 발굴의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지역 문화의 실제·원형에 대한 인문학적 선행 연구가 함께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총서 발간은 2014년부터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내포 지역 민속예술과 문화, 보부상, 음식 등을 추가해 내년 상반기까지 총 12권을 발간할 계획이다.

한편, '내포 문화 총서'는 비매품으로 각 시·군청 자료실과 도서관, 문화원, 공공기관 자료실 등에 배포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불교문화재 전기화재, 사전에 차단한다

문화재청, 동산·목조문화재 전기 및 피뢰설비 긴급보수

불교 목조 문화재의 전기 및 피뢰 시설에 대한 긴급 보수가 진행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지난해 실시한 국보·보물 동산문화재 소장 목조 건물의 전기시설 조사와 목조문화재 낙뢰피해 현황조사 결과, 강제 금산사 미륵전(국보 제62호)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된 13개소에 대해 긴급보수를 시행한다.

목조건축물 화재 원인 중 약 20%가 전기 관련 안전사고이며, 목조문화재 역시 전기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화재 위험에 노출돼 왔다.

실제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의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0~2015년 발생한 목조문화재 화재 사고 24건 중 전기로 인한 화재는 5건(20.8%)으로, 부주의

이해 따라 속초 신홍사 목조아미타여래상존자상(보물 제1721호)이 안치돼 있는 신홍사 극락보전 등 동산문화재 소장처 9개소의 전기시설과, 구례 화엄사 각황전(국보 제67호) 등 목조문화재 4개소의 피뢰설비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이들 문화재를 대상으로 1월 중 긴급보수비 4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긴급보수하기로 결정했다.

5년간 목조문화재 화재사고

20%가 전기로 인해 발생돼

철강사 등 설비 개선 추진

이에 문화재청은 매년 목조문화재 전기시설 노후화 조사를 통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보·보물 동산문화재 소장처(목조 건물) 149개소에 대한 전기시설 조사와 해인사 장경관전 등 주요 목조문화재 53개소의 낙뢰피해 조사를 실시했다.

### 인문·이공 복합형 인재 양성 나선다

동국대, 'JOBS 아카데미'

이공계와 인문계의 장점을 두루 갖춘 융합형 인재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동국대가 새로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학부교육선도 대학사업(ACE사업)의 일환으로 1월 15일과 22일, 두 번에 걸쳐 '스티브 JOBS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파일럿 프로그램 형식으로 대학에서는 최초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5~16일 1차 캠프가 열렸으며, 22~23일 2차 캠프가 열린다.

'스티브 JOBS 아카데미'는 그 이름처럼 스티브 잡스의 경영방식과 창의적 리더십, 인문학과 기술의 조화 등을 통해 미래가 원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집중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이다. (02)2260-3052

### 교직원 양성 전문교육

## 제91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시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6년 1월 중

◆개강일시 : 2016년 1월 중

매주 (월, 수)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교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 출강 및 통신 2016학년도 제 25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 불교 법사 신입생 모집

뛰어난 불교교육과 법사자격을 원하십니까?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 25년의 법사 교육에 전통과 신뢰는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에 또 하나의 자랑과 긍지입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1년) · 대법사과정 (2년) · 불학연구원과정 (5년) · 불교석학과정 (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6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부산교육원 ☎ 051-466-1959 ·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건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 02)733-1959  
720-1836